

중년기 남녀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매개효과*

지 은 주[†]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 남녀의 삶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경로에서 나타나는 남녀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의 40세에서 65세 중년기 남녀 성인 391명(여자 256명, 남자 156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생성감, 주관적 안녕, 영성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모형을 통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한 뒤 중년기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년기 남녀 집단의 의미발견은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중년기의 생성감과 영성은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의미발견과 함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중년기 성인이 의미추구를 할 때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을 거쳐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매개효과 모형에서 남성과 여성은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영성은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였으며 영성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년기 삶의 의미가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경로와 함께 남녀 성차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의미추구, 의미발견, 중년기, 성차, 생성감, 영성, 주관적 안녕

* 본 논문은 지은주의 박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지은주,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E-mail: jieunju1@cu.ac.kr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년기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다. 과거 노년으로 분류되던 연령의 성인들도 자신을 중년으로 인식하는(Lachman, 2004) 등 중년기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어떻게 하면 중년기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년기는 전문성을 쌓고 직업적으로도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McAdams, de St. Aubin, & Logan, 1993). 또한 사회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수준 높은 삶에 대한 열망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된다(Compton, 2007). 그러나 한편 중년기는 죽음과 인간의 유한함과 노화를 경험하고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더욱이 중년기 이전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위축,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은 중년기 부적응에 주목한 연구들은 중년을 위기의 시기라고 하였지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아있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며 더 나아가 이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자 한다(Emmons, Colby, & Kaiser, 1998; Vash, 1994). 따라서 이 시기에 주요 과업의 성취에 관한 평가에서부터 전체 삶의 조망,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 영성적 자각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삶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김경은, 박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Baltes & Baltes, 1990). 이러한 특징으로 중년기를 청소년기와는 다른 의미의 2차 성장기라고도 하는데(Sadler, 2000)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시도로 인한 혼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보통 위기를 경험하거나 삶에 대한 기존의 인지 도식에 변화를 겪을 때 삶의 의미에 대하여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김경희, 이희경, 2013). 말하자면 사람들은 일상적 경험이나 사건, 특히 삶의 전환기적 사건 속에서 삶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고 이러한 의미에 관한 질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주관적 안녕을 경험한다(Steger, Oishi, & Kashdan, 2009). 역경이나 상실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재조직하여 유지하기 어려운 목표를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Emmons, Colby, & Kaiser, 1998; Vash, 1994). 중년기의 일련의 발달적 변화들은 이를 더욱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의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Frankle(1959) 이후 주목 받게 된 개념으로 그는 극한의 경험조차 의미가 있으며 의미를 찾는다면 고통을 넘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삶의 의미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Park & Ai, 2006) 정신건강과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Steger & Frazier, 2005; 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그 영향력은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Reker, 2005; Steger et al., 2009).

삶의 의미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삶의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Frankl, 1959) 자신이 가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의미를 추구하며 이러한 동기는 사람, 사물, 더 초

월적인 대상과의 연결 안에서 삶의 중요성을 이루어가게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얻게 된다(Baumeister, 1991). 이와 같이 삶의 의미는 학습되고 발견되거나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점(Baumeister & Vohs, 2002)에서 의미 내용은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과 관련된다(Reker, Peacock, & Wong, 1987). 발달과업과 삶에 대한 관점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데(Pasupathi, Staudinger, & Baltes, 2001)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미래보다는 이미 일어난 과거를 돌아보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진다(Kiang & Fuligni, 2010).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삶의 의미는 연령에 따라 그 과정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중년기의 삶의 의미 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이 고려되어야 한다.

삶의 의미는 안녕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안녕감은 단순히 정신적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최적의 심리적 기능과 경험', 또는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상태'로 정의되는데(전경숙, 2010; Ryan & Deci, 2001) 안녕감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행복과 삶의 의미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개념이 대두되었다(Keyes, Shmotkin, & Ryff, 2002; Ryff & Singer, 1998). 주관적 안녕으로 설명되는 행복이란 삶에 대한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높은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의 경험 그리고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상태이다(박선영, 권석만 2012). 행복은 삶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으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과거의 경험, 가치관, 기대수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특히 행복은 의미추구에서 비롯되는 것(Wong, 1998)으로 알려져 있는데 삶의 의미도 주관적 판단에 의하며 그 효과도 주관적 안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Steger et al., 2006).

중년기 의미발견 과정

Steger 등(2006)은 삶의 의미를 동기적 요소인 의미추구와 결과적 요소인 의미발견의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의미추구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열망과 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의미발견은 의미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추구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유성경, 박은선, 김수정, 조효진, 2014) 의미추구가 모두 의미발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미추구를 하다가 의미발견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정서와 관련되었다(Steger, Kashdan, Sullivan, & Lorentz, 2008). 심지어 의미추구시 의미발견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초에 의미추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도 더 적응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Davis, Wortman, Lehman & Silver, 2000). 의미추구가 혼란스러운 사건에 대한 반응 또는 욕구의 좌절로 인한 불편감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따라서 의미추구 시 안녕감과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의미발견을 하여야 한다(정미영, 2009; 정주리, 이기학, 2007; Steger et al., 2006).

의미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의미추구와 발견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상황의 긍정적 재해석(정주리 등,

2007), 긍정정서(김경희 등, 201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정미영, 2010),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유성경, 김유진, 2015), 다른 사람과 맺는 신뢰롭고 온정적인 대인관계(정미영, 2009), 정체성의 발견(Steger et al., 2009), 우울과 불안, 반추(Steger et al., 2008) 등이 삶의 의미 과정의 매개 또는 조절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삶의 의미에 관한 물음과 의미과정에 관련된 매개변인들의 효과가 전생애 관점에서 항상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 특히 중년기 이후 즉 후기 발달단계로 갈수록 의미발견이 동반되지 않는 의미추구는 낮은 안녕감과 관련되어 있음(Steger et al., 2009)을 볼 때 중년기의 의미추구 시 주관적 안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매개변인의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삶의 의미 발견은 학습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이때 그 시기의 발달과업과 연령에 따른 변화들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중년기 이후 크게 증가하는 심리적 특징인 생성감과 영성에 주목하였다.

중년기의 생성감

중년기의 중요한 발달적 주제로 Erikson (1968)은 생성감(generativity)을 들었다. 생성감이란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며 자신과 자기 세대의 이익 뿐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 헌신할 때 성취되는 것이다(최혜경, 안정신, 1999). McAdams와 de St. Aubin(1998)은 생성감이 광범위한 심리사회 구조 속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개인적 사회적 특징들 속에서 많은 다른 활동들과의 결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생성감은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하는 욕구,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내적인 욕구들로부터 생겨나며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역할로 인하여 표현된다. 또한 생성감은 내적 욕구, 문화적 요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종에 대한 믿음, 헌신, 행동(돌봄, 유지, 제공) 그리고 이야기의 7가지 심리사회적 특징을 갖는다(McAdams & de St. Aubin, 1992). 종합하면, 생성감은 개인 내에 존재하는 개념이지만 사회 환경과 개인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고 중년기의 내적 발달정도, 심리사회적 적응 정도를 나타내며(이옥희, 이지연, 2012) 친사회적 성격, 일을 통한 생산적 태도, 자녀양육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표현된다(Peterson & Stewart, 1996).

생성감 발달은 초기 성인기부터 시작되지만 중년기에 와서 그 실현과 성취가 크게 증가하며(Peterson & Stewart, 1996; Stewart, Ostrove, & Helson, 2001) 중년기의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과 관련된다(Vailant, 2002). 이 시기에 생성감을 획득하지 못하면 침체감과 자기 독단에 빠지기도 한다(Schoklitsch, 2012). Sadler(2000)는 부적응적인 중년 성인들이 삶의 무의미감, 공허감, 절망감, 무기력감과 같은 정서적 혼란의 상태를 드러내는데 이것을 침체감(stagnation)으로 설명하였다. 침체감에 빠질 때 자기 이익과 편안, 자기 탐닉에 빠지고 자녀들의 복지와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관대함이 결여되고 타인을 돌보는 것의 어려움, 부부관계나 세대간 갈등과 불만족, 우울증, 낮은 자존감을 나타낸다(McAdams & de St. Aubin, 1992).

한편 삶의 의미는 ‘외부세계를 포함한 자기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장기간 지속한 삶의 열망, 목적의 상위개념(Steger, 2012)이다. 이때 중년기의 외부세계를 포함한 자신에 대

한 이해 능력은 생성감 발달 정도와 관련된다 고 볼 수 있으며 의미의 발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의미 발견 과정에서 생성감을 관련 변인으로 직접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삶의 의미가 다차원적이며 발달과정과 관련된 의미추구를 한다 (Reker et al., 1987)는 결과에 따라 의미추구와 정체성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Steger 등(2009)의 연구를 주목해볼 수 있다. 그들은 Marcia (1966)의 정체성 발달 모형에 비추어 의미추구는 정체성 탐색, 의미발견은 정체성 헌신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의미추구를 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정체성을 찾고 확립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생성감은 중년기 성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데에 중요하며(Sadler, 2000) 중년기 생성감 수준은 삶의 의미 과정에서 의미추구 시 의미발견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생성적 관심은 삶의 만족과 삶의 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삶의 의미 발견과 연관되는 데(Ackerman, Zuroff, & Moskowitz, 2000) 특히 생성적 관심은 생성적 목표를 통해서 의미 발견에 영향을 준다(Hofer, Busch, Au, Šolcová, Tavel, & Wong, 2014)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성감은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년기의 영성과 삶의 의미

중년기에 시간 조망의 변화와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 속에서 영성의 발달을 경험한다(Archley, 2009; Kiesling, Sorell, Montgomery, & Colwell, 2006). 물질적인 삶을 넘어 가치 있는 것을 지향하고 외적인 성취보다 내면의 성장에 대해 천착하면서 삶의 초월

적 차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전환의 시기인 중년기에 우울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삶에 대한 재평가를 자극함으로써 깊은 영성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Genia & Cooke, 1998). Berkeley대학 인간발달연구소 장기종단 연구(Dillon & Wink, 2003)도 영성이 성인 초기보다 중년기에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영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영성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생겨날 수 있는 것(Ellison, 1983)으로 현재 자신의 중심을 초월하려고 추구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또한 영성은 상호연결성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 초월성, 자각, 봉사심을 드러내는 요소(이경열, 김정희, 김동원, 2003), 절대자나 우주와의 초월적인 관계,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관계(Stoll, 1989),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한 개인의 추구(Hill & Pargament, 2003)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영성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영성을 전인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평가한다(MacDonald, 2000; Myers, Sweeny, & Witmer, 2000). 영성이 정신건강을 증진하고(Hadzic, 2011) 삶의 만족(Miller & Thoresen, 2003) 개인의 성장 촉진(Julian, 1992) 자아탄력성(Kennedy, Davis, & Taylor, 1998)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 영성 수준이 높은 중년 성인들은 행복감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미, 유승아,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과정에서 영성의 영향을 살펴볼 때 영성은 주관적 안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의미과정에서 영성을 관련 변인으로 두고 그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영성은 아니지만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Steger와 Frazier(2005)는 의미발견이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종교성은 영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영성의 요소를 관찰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실존적 영성에 실제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의미발견이 영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의미발견을 하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는 경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성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들로 볼 때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 영성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이후에 더욱 발달하는 것인지 의미추구를 통해 생겨나고 발달하여 의미발견에 의해 촉진되는 것인지 연구들마다 다르다. 영성은 의미발견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들이 확신하지 못한 인생 전체에 존재론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믿으며 삶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자신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Ribaudo & Takahashi, 2008).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다(Vaillant, 2008). Emmons(2003)는 삶의 의미가 Big Four(WIST: Work, Intimacy, Spirituality, Trancendence) 즉 일/성취, 친밀감/관계, 영성/종교, 초월/생성감의 네 가지 주제로 수렴된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영성은 의미발견 과정에서 초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적 요소와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적 요소가 있다(이예나, 2010)고 할 수 있으며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기화되며 초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달하며 의미발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더욱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의미과정에 나타난 중년기 남녀의 차이

중년 남녀의 차이는 종종 코미디의 소재로 다루어지는 등 경험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곤 하는데 과장되어 드러나는 성별 차이는 실제 연구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녀 성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중년기 남녀의 뚜렷한 심리적 차이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중년기 의미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중년기에 대한 자각이 더 늦으며 중년기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기 삶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년기의 변화에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집단으로 인식된다(홍승정, 윤미경, 이세원, 안혜경, 유시영, 2013). 이 같은 점은 연구에서도 반영되어 있어 중년기 남성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가족 관계, 직업 관계 등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다루었고(고기숙, 2003) 여성의 경우 빈 등지 증후군, 결혼 만족 등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Evandrou, Glaser, & Henz, 2002).

삶의 의미과정 관련 변인들의 성차를 확인한 연구들은 주로 각 변인들의 평균 차이는 탐색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구조 경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선행연구에서 삶의 의미, 생성감, 영성, 주관적 안녕은 성차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는다. 먼저 삶의 의미 수준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의미수준이 높다는 결과(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de Lazzari, 2000)와 반대로 근소한 차이지만 남성

이 여성보다 삶의 의미 수준이 높다는 결과 (Cohen & Cairns, 2012)로 서로 엇갈린다. 생성감의 경우 Keyes와 Ryff(1998)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생성감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생성감이 성인 발달의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 역할과 관련하여서 다루어져온(McAdams, 2001; McMullin & Marshall, 1996)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자녀가 없는 성인과 자녀가 있는 성인의 생성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가 없는 나이든 여성과 자녀가 있는 여성 사이의 생성감 수준의 차이는 없었으며 자녀 없는 나이든 남성과 자녀가 있는 남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Rothrauff & Cooney, 2008). 자녀가 없는 성인은 다른 생애 경로로 중년기를 이끌며 다양한 사회의 영역에서 생성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안녕감을 획득한다는 연구와 반대로 자녀 없는 성인이 자녀 있는 성인보다 낮은 안녕감과 생성감을 보인다는 결과도 있었다 (Zhang & Hayward, 2001). 생성감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그 특성이 높게 나타났는데(박은선, 2013; 오경석, 2001) 이는 여성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족 및 사회에서 젊은 세대에게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중년 남성들은 일에 변화가 생길 경우 생성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일로서 역할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박은선, 2013). 생성감 수준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생성감과 안녕감 간의 관계는 여성에게서 부적으로 나타난다. Morfey 등(2004)의 미혼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에 비해 생성감 수준이 높았으나 오

히려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보다 자녀 등 가족 성원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홍주연 등, 2013) 여성의 영성 수준도 중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Dillon & Wink, 2003).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안녕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 중년 남성의 주관적 안녕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거나(김명소, 한영석, 2006; 홍주연 등, 2013)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박영신, 김의철, 2009) 등 일관되지 않았다. 김명소 등(2006)은 중년기 남녀의 행복에는 공통적으로 자기 수용감, 여가가 영향을 미치며 그 내용에 있어서 중년 남성의 행복에는 자기 계발 및 목표 추구가, 중년 여성의 행복에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들은 삶의 의미과정에서 생성감과 영성과 함께 성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연구모형 설정 및 연구가설

선행연구와 관련이론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을 거쳐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생성감이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가정하였다. 의미추구는 발달과업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중년기의 의미추구는 생성감 과업의 성취 수준이 의미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다음으로 중년기의 영성이 의미추구로부터 생겨나고 또한 의미발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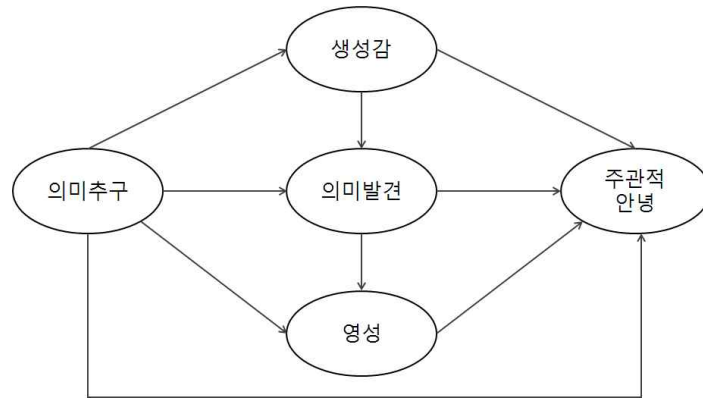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주관적 안녕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성은 초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의미발견 이후 미래에 대한 영속적인 믿음과 의미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미발견은 영성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의미추구, 의미발견, 생성감, 영성, 주관적 안녕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가 본 연구의 모형 경로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중년기 남녀의 의미발견은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중년기 남녀의 생성감과 의미발견은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중년기 남녀의 의미발견과 영성은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중년기 남녀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매개효과 경로에 성차가 있을 것

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40-65세의 중년기 성인 남녀 4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과 40-65세의 연령 범위 밖에 있는 설문을 제외한 총 391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 중 남자는 156명(39.9%) 여자는 235명(60.1%)으로 연령대는 40대가 257명(65.7%), 50대 이상이 134명(34.3%)으로 전체 평균연령은 47.7세($SD=6.45$)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45명(11.5%), 대졸 이상은 345명(88.2%)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238명(60.9%)이었으며 기혼자는 총 351명(89.8%)이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의 대졸 비율(89.8%)이 남성(85.9%)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도 여성(64.7%)이 남성(55.1%)보다 높았다.

측정도구

삶의 의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측정하기 위해 Ster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가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이 번안,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MLQ: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의미발견(의미존재)과 의미추구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각 요인 당 5문항, 총 10문항의 7점 리커트로 측정된다. 의미추구는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 수준을, 의미발견은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의미추구가 .92, 의미발견이 .87 이었다.

생성감

중년기 생성감을 측정하기 위해 McAdams와 Aubin(1992)이 개발한 생성감 척도(Loyola Generativity Scale; LGS)를 오경석(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LGS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생성감 척도로(Schoklitsch, 2012) 총 20문항의 5점 리커트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영성

Paluozian과 Ellison(1983)이 개발한 영적안녕 척도를 박지아(2003)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녕감과 실존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과 영성을 측정한다. 총 20문항이며 6점 리커트로 측정된다. Ellison(1983)이 밝힌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3 이며 본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5문항의 7점 리커트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주관적 안녕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적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atson, Clark, Tellegen(198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현재를 포함하 지난 1주일간의 정서 상태를 각 형용사 당 5점 리커트로 응답하도록 하여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4)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내적 합치도는 .86이며 정적 정서 .91, 부정 정서 .8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이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적합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확인하였다. 그 전에, 주관적 안녕은 Diener(1984)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 (긍정정서 - 부정정서)

우선 각 측정치의 문항수와 분포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각각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한 다음 위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 df , TLI, CFI, RMSEA 지수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측정모형의 요인값을 확인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별 추정치의 유의성 검증을 한 후 수정모형을 설정한 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심층적 분해를 실시하였다. 삶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 스트래핑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성감과 의미발견의 이중매개효과, 의미발견과 영성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부트 스트래핑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매개효과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모형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다룬 삶의 의미추구, 의미발견, 생성감, 영성(실존영성, 종교영성), 주관적 안녕(삶의 만족,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등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왜도 및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정규분포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첨도와 왜도의 절대치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권장(Finch, West, & MacKinnon, 1997)되며 표준왜도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평균 / 만점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의미추구	5.37 / 7	1.08	-.66	.33
의미발견	5.24 / 7	1.05	-.41	-.35
생성감	3.59 / 5	.56	.07	-.16
영성	4.20 / 6	.80	.41	-.19
실존영성	4.53 / 6	.76	-.04	-.20
종교영성	3.89 / 6	1.11	.02	-.24
주관적 안녕	.00	1.59	.05	-.08
삶의 만족	4.64 / 7	1.20	-.33	-.25
긍정정서	3.10 / 5	.78	-.01	-.19
부정정서	1.95 / 5	.59	.75	.50

※ 주관적 안녕은 삶의 만족 + (긍정정서 - 부정정서)로 표준점수 z점수로 변환되어 있음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391)

	1.	2.	3.	4.	4-1.	4-2.	5.	5-1.	5-2.	5-3.
1. 의미추구	-									
2. 의미발견	.70**	-								
3. 생성감	.55**	.62**	-							
4. 영성	.44**	.55**	.49**	-						
4-1. 실존영성	.49**	.62**	.56**	.72**	-					
4-2. 종교영성	.28**	.34**	.32**	.91**	.39**	-				
5. 주관적 안녕	.46**	.58**	.55**	.49**	.73**	.24**	-			
5-1. 삶의만족	.43**	.52**	.51**	.44**	.63**	.23**	.80**	-		
5-2. 긍정정서	.39**	.49**	.47**	.39**	.52**	.21**	.68**	.36**	-	
5-3. 부정정서	-.08	-.16**	-.10*	-.15**	-.32**	-.02	-.56**	-.21**	-.02	-

* $p < .05$ ** $p < .01$

는 3.0 이하, 표준침도는 10이하이어야 한다 (Kline, 2005). 본 연구에서 왜도는 -.66~.75 침도는 -.35~.50으로 절대치 10이하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통하여 모수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변인인 의미추구, 의미발견, 생성감, 종교영성과 실존영성을 포함한 영성, 삶의 만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로 구성된 주관적 안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높은 정적 상관($r = .70, p < .01$)을 보였으며 부정정서는 종교영성과 긍정정서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의미발견은 부정적인 변인인 부정정서($r = -.16, p < .01$)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중년기 성인 남녀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여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경로에 생성감과 영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분석의 2단계 절차 (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살펴보고자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chi^2(44, N=391) = 122.915, p = .000, TLI = .958, CFI = .972, RMSEA = .068$ 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값은 의미추구 .84~.97, 의미발견 .78~.92, 생성감 .67~.87, 영성 .40~.97, 주관적 안녕 .61~.68로 나타나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p < .001$).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측정모형의 요인값은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통해 의미추구가 주관적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122.915	44	.958	.972	.068

표 4. 측정모형의 요인값

요인		B	β	$S.E.$	C.R.
의미추구	추구 1	1.07	.97	.05	21.50***
	추구 2	1.00	.84		
의미발견	발견 1	1.00	.92	.05	18.50***
	발견 2	1.00	.78		
생성감	생성1	1.22	.85	.09	14.38***
	생성2	1.32	.87	.09	14.57***
	생성3	1.32	.87	.09	14.53***
	생성4	1.00	.67		
영성	종교영성	.60	.40	.09	6.80***
	실존영성	1.00	.97		
주관적 안녕	정서	1.14	.61	.09	11.52***
	삶의 만족	1.00	.68		

*** $p < .001$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또한 생성감과 영성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생성감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이러한 단순매개 경로에 더하여 의미추구 → 생성감 →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영성 → 주관적 안녕의 이중매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TLI, CFI와 RMSEA 지수를 사용하였다. Browne과 Cudeck(1993)은 RMSEA의 값에 대하여 .05이하를 우수한 적합도, .05에서 .08 사이를 적절한 적합도로 보았고 .1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TLI와 CFI는 1부터 0까지의 값을 지니는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한다(Bentler, 1990).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는 $\chi^2(47, N=391) = 134.734, p = .000$, TLI = .956, CFI = .969, RMSEA = .069로 나타나 기

준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의미추구에서 영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beta = -.12$)와 의미추구에서 주관적 안녕으로 가는 경로($\beta = -.04$)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미추구에서 영성으로 가는 경로와 의미추구에서 주관적 안녕으로 가는 경로의 선을 제거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한 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49, N=391) = 136.695, p = .000, TLI = .958, CFI = .969,$

RMSEA = .068로 나타나 연구모형에 비하여 더 개선된 적합도를 보여 기준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여 매개변인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최종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의 표준경로계수는 그림 2에, 수정모형의 표준경로계수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수정모형의 표준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의미추구는 의미발견($\beta = .60$,

표 5.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34.734	47	.956	.969	.069
수정모형	136.695	49	.958	.969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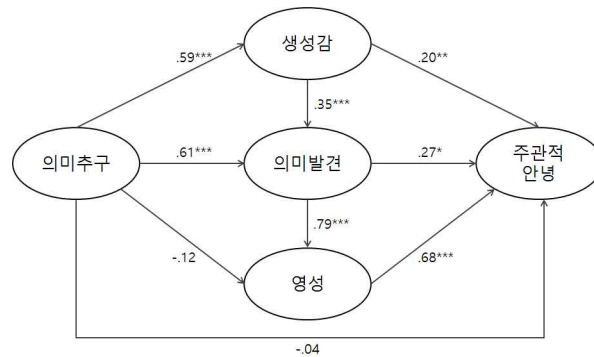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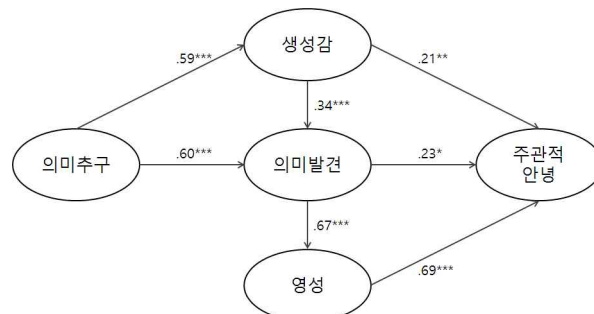


그림 3. 수정모형의 표준경로계수

$p < .001$)과 생성감($\beta = .59,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생성감은 의미발견($\beta = .34, p < .001$)과 주관적 안녕($\beta = .21, p < .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성감은 의미발견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주관적 안녕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의미발견은 영성($\beta = .67, p < .001$)과 주관적 안녕($\beta = .23, p < .05$)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영성은 주관적 안녕($\beta = .69,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채택한 수정모형에 대한 총 효과의 분해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의미추구,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생성감의 매개효과, 영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가 영성에 미치는 영향, 생성감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생성감이 영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와 의미발견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생성감은 의미발견에 직접 작용해 .34의 효과크기를, 영성에는 .23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고 주관적 안녕에는 .21의 직접효과와 .24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어 .44의 총 효과를 보였다. 의미발견은 주관적 안녕에 .23의 직접효과와 .47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어 총 .69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영성은 주관적 안녕에 .69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최종모형의 총 효과 분해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의미추구와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 주관적 안녕의 경로에서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경로들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였다. 의미추구 → 의미발견, 의미추구 → 주관적 안녕, 의미추구

표 6. 수정모형의 효과분해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의미추구	생성감	.59		.59
	의미발견	.60	.20	.80
	영성		.54	.54
	주관적 안녕		.68	.68
생성감	의미발견	.34		.34
	영성		.23	.23
	주관적 안녕	.21	.24	.44
의미발견	영성	.67		.67
	주관적 안녕	.23	.47	.69
영성	주관적 안녕	.69		.69

→ 영성, 생성감 → 영성, 생성감 → 주관적 안녕,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의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모든 매개경로의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의미추구와 영성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생성감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생성감과 영성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성감과 의미발견의 이중매개효과, 의미발견과 영성의 이중매개효과와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삼중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성감과 의미발견, 의미발견과 영성의 이중매

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추구에서 주관적 안녕의 경로에서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삼중매개효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ootstrap 방법을 이용한 매개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경로모형 차이: 다집단 분석

다집단 분석은 측정모형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다. 즉 다집단 분석은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이용되며 교차타당성을 적용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Byrne, 2001).

다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비교하려는 두 집단의 데이터를 구분한 뒤 요인 적재치에 집단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의 적합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각 측정변인들이 각 집단에서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측정 동일성이 적합한 수준일

표 7. Bootstrap 방법을 이용한 매개경로의 유의성 검증

매개경로	간접효과	
	최소	최대
1.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	.60	.74
2.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영성	.44	.63
3. 생성감 →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	.16	.34
4. 생성감 → 의미발견 → 영성	.15	.32
5. 의미추구 → 생성감 → 의미발견	.14	.27
6. 의미발견 → 영성 → 주관적 안녕	.33	.64
7. 의미추구 → 생성감 →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	.01	.05
8.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영성 → 주관적 안녕	.10	.24
9. 의미추구 → 생성감 → 의미발견 → 영성 → 주관적 안녕	.03	.09

때 집단 간 교차 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 간 회귀계수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면, 잠재변인 간 경로가 두 집단에서 동일한 지를 점검하는 경로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변화하는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집단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모형 간의 비교에는 $\Delta\chi^2$ 값을 이용하며, 적합도 지수로는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있는 ΔTLI 와 ΔRMSEA 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먼저,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chi^2(103, N = 391) = 205.799$, $\text{TLI} = .955$, $\text{RMSEA} = .049$). 다음으로 남녀 집단의 변인들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남녀 각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의미

발견 $\rightarrow$ 주관적 안녕, 생성감 $\rightarrow$ 주관적 안녕의 직접 경로에서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의미발견 $\rightarrow$ 주관적 안녕 경로에서 남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성은 생성감 $\rightarrow$ 주관적 안녕 경로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의 7개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뒤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Delta\chi^2(9, N = 391) = 16.903$, $\Delta\text{TLI} = -.003$, $\Delta\text{RMSEA} = .000$). 그러나 다른 변인들과 달리 영성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1, N = 391) = 9.574$, $p < .01$). 이는 영성과 주관적 안녕의 경

표 8.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집단간 등가 제약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205.799	103	.957	.967	.050
집단간 등가 제약모형	222.702	112	.954	.961	.050
χ^2 차이검증		$\Delta df = 9$		$\Delta \chi^2 = 16.903$	

표 9.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남녀집단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의미추구	$\rightarrow$	의미발견	1	.08	-0.001
의미추구	$\rightarrow$	생성감	1	.82	0.000
생성감	$\rightarrow$	의미발견	1	1.08	0.000
의미발견	$\rightarrow$	영성	1	.05	-0.001
의미발견	$\rightarrow$	주관적 안녕	1	3.32	0.001
생성감	$\rightarrow$	주관적 안녕	1	1.63	0.000
영성	$\rightarrow$	주관적 안녕	1	9.57**	0.003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7	16.90*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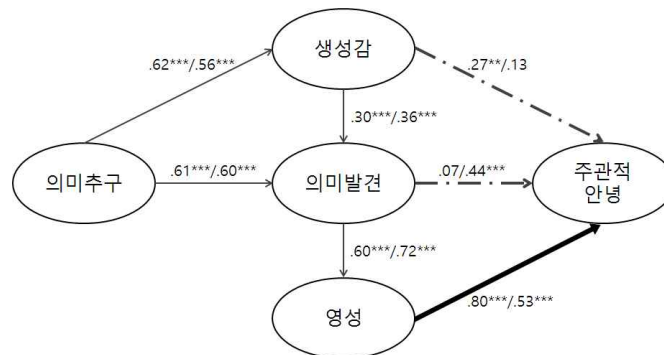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표준화계수 (남성 표준화 계수/ 여성 표준화 계수)

실 선(—) : 남녀 모두 유의
점 선(-.-.-) : 한쪽 성만 유의
굵은 선(—) : 성차 유의한 경로

로에 남녀간 유의미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측정동일성 제약 모형과 집단간 등가 제약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8에 제시하였고 각 모형들 간의 남녀 집단 차이 비교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또한 남녀 집단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그림 4에 제시하였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성에서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남성이 .80($p < .001$) 여성이 .53($p < .001$)이었다. 이는 남성 집단의 영성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 집단에 비해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영성의 평균은 여성이 더 높았으나 영향력은 남성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삶의 전환기인 중년기 성인들이 의미를 추구함에 있어 의미를 발견하여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미과

정에 관여하는 변인들의 탐색은 중요하다. 이는 중년기가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기이면서 상승과 쇠퇴가 공존하는 시기인 탓에 삶의 의미과정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경로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성장과 위기에 대한 중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적 요인과 누적된 경험의 결과로 나타난 성별 차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심리적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삶의 의미추구 과정에서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그 경로에서 나타나는 중년기 남녀의 성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삶의 의미추구는 의미발견을 하여야만 주관적 안녕감인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 점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됨으로써 후기 발달 단계에서도 의미추구 시 의미발견을 통해서만 주관적 안녕에 이른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거듭 확인되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중년기의

의미추구 시 의미발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변인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영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영성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에서 동기화되어 생겨나며 삶의 의미가 초월적인 또는 영적인 관심과 관련된다고 하였지만 의미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의미추구는 영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미발견이 영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성이 의미발견을 돕기보다는 의미발견을 한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영성에 대한 관심과 추구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모형 설정시 의미추구가 영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영성적 발달을 촉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영성 발달은 과정적 요소도 있으나 영성은 그 결과를 측정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생성감은 중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과정 속에서 탐색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성감은 중년기의 삶의 의미와 관련되는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본 연구를 통해 생성감이 의미추구 시 의미발견을 돕는 매개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성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중년기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후세대에 대한 지원과 헌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기회가 적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생각하면 삶의 의미감을 잃고 심리적 위기를 겪는 중년기 성인에게 생성적 활동의 기회와 원천을 제공해준다면 행복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생성감과 영성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는 생성적 활동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것이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추구가 생성감과 의미발견을 통해 주관적 안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가설이 지지됨으로써 의미추구가 생성감을 높이고 그것이 의미발견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높이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의미추구 이후 의미를 발견했으나 그것이 주관적 안녕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영성이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년기의 의미추구가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안녕감의 위기와 연관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경로를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년기 성차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삶의 의미, 영성, 생성감, 행복의 변인에서 그 차이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삶의 의미과정에서 나타난 경로의 차이를 중심으로 성차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년 남성의 경우 생성감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의미발견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갖기도 한 반면 중년 여성은 생성감은 의미발견을 통해서만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생성감이 남성과 여성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생성감은 주로 일과 역할로써 표현되고 획득되는데 중년기 남녀의 일과 역

할이 지각되고 이것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중년 여성에게 주어지는 생성적 역할이 주로 돌봄이나 보조적인 것이며 사회적으로 가치있거나 전문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며 금전적인 대가가 크게 주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의미부여가 필요해진다. 즉 '나는 세상에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있다'라든가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의미 있는 일이다' 등의 해석과 의미 부여 등을 통해야만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할 때만이 주관적 안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 남성의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여성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남성은 생성감을 획득하는 데에서 주관적 안녕을 느낄 수 있었는데 생성감을 확인하는 일이 차단당할 때에는 의미발견과 영성의 경로를 통해서 주관적 안녕을 느낄 수 있음을 본 연구로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의미발견, 영성, 주관적 안녕의 경로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남성은 의미발견에서 주관적 안녕의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영성의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여성은 의미발견에서 주관적 안녕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특히 영성에서 주관적 안녕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영성의 영향이 보다 강력하였다. 영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여성의 영성이 높으며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나(홍주연 등, 2013) 남성 집단에서 오히려 영성이 더 강력하게 주관적 안녕을 설명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남성들의 영성 수준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남성중에 영성이 발달된 사람이 주관적 안녕이 큰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발견은 남성과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중재에 성차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심리적 중재의 현장에서 영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발견한 성차를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의 삶의 의미와 행복 증진을 프로그램이나 중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생애 발달 관점으로 이전의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중년기의 생성감과 영성을 의미과정 관련 변인으로서 탐색하였으며 이로서 중년기의 의미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념의 추상성과 광범위함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추후 연구에서 생성감과 영성의 한 구성요소를 변인으로 하여 탐색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기숙 (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와 노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 김정은, 곽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한국 직장 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 인간발달연구, 18(3), 135-155.
- 김경희, 이희경 (2013). 긍정정서와 자기결정성 요인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 연구, 12(4), 1353-1370.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선영, 권석만 (2012).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41-768.
- 박영신, 김의철 (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박은선 (2013). 중년 남성의 나이듦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선, 박지아 (2013). 삶의 의미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논총, 29(1), 267-299.
- 서경현, 전겸구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1035-1057.
-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T. M. (2011).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35-54.
- 오경석 (2001). 청년, 중년, 노년의 생성감. 한국노년학, 21(1), 59-71.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유성경, 김유진 (2015). 삶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53-75.
- 유성경, 박은선, 김수정, 조효진 (2014).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1997년-2013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2), 441-465.
-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11-728.
- 이옥희, 이지연 (2012). 중년기 생성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 연구, 13(2), 665-688.
- 전경숙 (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 간 비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영 (2009). 삶의 의미발견과정에 관한 연구: 의미추구, 의미발견, 사생관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주리, 이기학 (2007). 의미발견을 통한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모형검증: 문제해결 책임감과 긍정적 재해석을 매개로. 상담학연구, 8(4), 1309-1321.
- 최혜경, 안정신 (1999). 이혼이 여성의 친밀감과 생성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6(1), 123-138.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

- 수 선정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161-177.
- 홍승정, 윤미경, 이세원, 안혜경, 유시영 (2013). 중·노년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7), 3275-3283.
- 홍주연, 윤 미 (2013). 중년여성의 영성이 행복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219-242.
- Ackerman, S., Zuroff, D. C., & Moskowitz, D. S. (2000). Generativity in midlife and young adults: Links to agency, commun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0(1), 17-4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chley, R. C. (2009). *Spirituality and Aging*.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Guilford.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08-61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Baltes, P. B. & Baltes M. M.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 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er, J. J., McAdams, D. P., & Sakeda, A. R. (2005). Interpreting the good life: Growth memories in the lives of mature, 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203-21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erspectives 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3), 327-334.
- Chandler, C., Holden, J. M., & Kolander, C. (1992). Counseling for Spiritual Wellness: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2), 168-175.
- Cohen, K., & Cairns, R. D. (2010). Is searching for meaning in life associated with reduced subjectiv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xistential Psychology & Psychotherapy*, 3(1), 1-5.
- Compton, W. C. (2007). 긍정심리학 입문 (서은국, 성민선, 김진주 역). 서울: 박학사. (원서출판 2005).
-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correct? *Death Studies*, 24(6), 497-540.
- De Lazzari, S. A. (2000). *Emotional intelligence, meaning,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A comparison between early and late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Langley, BC, Canada: Trinity Western University.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Suh, E. M., & Oishi, S. (1997). Recent findings on subjective well-being. *Indi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5-41.
- Dillon, M., & Wink, P. (2003). Religiousness and spirituality: trajectories and vital involvement in late adulthood. In Dillon, M.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pp. 179-18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38.
- Emery, E. E., & Pargament, K. I. (2004). The many faces of religious coping in late life: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Ageing International*, 29(1), 3-27.
- Emmons, R. A. (2000). Is Spirituality an Intelligence? Motivation, Cognition, and the Psychology of Ultimate Concer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0(1), 3-26.
- Emmons, R. A., Colby, P. M., & Kaiser, H. A. (1998). When losses lead to gains: Personal goals and the recovery of meaning.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pp. 163-178). Mahwah, NJ: Erlbaum.
- Emmons, R. A., & Paloutzian, R. F. (2003).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377-402.
- Erikson, E. H. (1976). *Childhood and society* (6th ed.). England: Penguin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50)
- Erikson, E. F., Erikson, J. M.,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The experience of old age in our time*. New York: Norton.
- Evandrou, M., Glaser, K., & Henz, U. (2002). Multiple Role Occupancy in Midlife: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in Britain. *The Gerontologist*, 42(6), 781-789.
- Finch, J. F., West, S. G., & MacKinnon, D. P. (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4(2), 87-107.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Frankl, V. E. (1984).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서울: 청아출판사. (원서출판 1946).
- Genia V., & Cooke, B. A. (1998). Women at midlife: Spiritual maturit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7(2), 115-124.
- Hadzic, M. (2011).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Curren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13(4), 223-235.
- Hill, P. C., & Pargament, K. I. (2003). Advance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mplications for

-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58(1), 64-74.
- Hill, P. C., Pargament, K. I., Hood, R. W., McCullough, J. M. E., Swyers, J. P., Larson, D. B., & Zinnbauer, B. J. (2000). Conceptualizing religion and spirituality: Points of commonality, points of departur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0(1), 51-77.
- Hofer, J., Busch, H., Au, A., Poláčková Šolcová, I., Tavel, P., & Tsien Wong, T. (2014). For the benefit of others: Generativity and meaning in life in the elderly in four cultures. *Psychology and Aging*, 29(4), 764-775.
- Julian, R. (1992).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and spiritual direct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1, 309-315.
- Kennedy, J. E., Davis, R. C., & Taylor, B. G. (1998). Changes in spirituality and well-being among victims of sexual assaul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22-328.
- Keyes, C. L. M., & Ryff, C. D. (1998).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ocial structural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In D. P. McAdams & E. de St. Aubin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pp. 227-26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eyes, C. L. M., Shmotkin, D., & Ryff, C.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 Kiang, L., & Fuligni, A. J. (2010). Meaning in Life as a Mediator of Ethnic Identity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Latin, Asian, and European American Backgrou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1), 1253-1264.
- Kiesling, C., Sorell, G. T., Montgomery, M. J., & Colwell, R. K. (2006). Identity and spirituality: A psychosocial exploration of the sense of spiritual self.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269-1277.
-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achman, M. E. (2004). Development in mid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305-331.
- MacDonald, D. A. (2000). Spirituality: Descrip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8(1), 153-197.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 McAdams, D. P., & de St Aubin, E. D. (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03-1015.
- McAdams, D. P., de St Aubin, E. D., & Logan, R. L. (1993). Generativity among young, midlife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8(2), 221-230.
- McMullin, J. A., & Marshall, V. W. (1996). Family, friends, stress and well-being: Does childlessness make a difference? *Canadian Journal on Aging*, 15(3), 355-373.
- Miller, W. R., & Thoresen, C. E. (2003).

- Spirituality, religion and health: An emerging research field. *American Psychologist*, 58(1), 24-35.
- Morfe, M. Z., Hooker, K., Carpenter, J., Mix, C., & Blakeley, E. (2004). Agentic and communal generative behavior in four areas of adult life: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1), 55-58.
- Myers, J. E., Sweeney, T. J., & Witmer, J. M. (2000). The Wheel of Wellness counseling for wellness: A holistic model for treatment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3), 251-266.
- Neugarten, B. L. (1975).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loutzian, R., & Ellison, C. (1983).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24-237).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 Park, C. L., & Ai, A. L. (2006). Meaning making and growth: New directions for research on survivors of trauma.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5), 389-407.
- Peterson, C., Park, N., Hall, N., & Seligman, M. (2009). Zest and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2), 161-172.
- Peterson, B. E., & Stewart, A. J. (1996). Antecedents and contexts of generativity motivation in midlife. *Psychology and Aging*, 11(1), 21-33.
- Reker, G. T. (2005). Meaning in life of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Factorial validity, age, and gender invariance of the Personal Meaning Index.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1), 71-85.
- Reker, G. T., Peacock, E. J., & Wong, P. T. P. (1987). Meaning and purpose in life and well-being: A life-span perspective. *Journal of Gerontology*, 42(1), 44-49.
- Rothrauff, T., & Cooney, T. M. (2006). The Role of Generativity in Psychological Well-Being: Does it Differ for Childless Adults and Paren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5(3), 148-159.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adler, W. (2000).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김경숙 역). 서울: 사이. (원서출판 1999).
- Schoklitsch, A. (2012). Generativity and aging: A promising future research topic? *Journal of Aging Studies*, 26(3), 262-272.
- Steger, M. F. (2012). Making Meaning in Life. *Psychological Inquiry*, 23(4), 381-385.
- Steger, M. F., & Frazier, P. (2005). Meaning in Life: One link in the chain from religion to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74-582.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Steger, M. F., Kashdan, T. B., & Oishi, S.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43-52.
- Steger, M. F., Kashdan, T. B., Sullivan, B. A., & Lorentz, D. (2008). Understanding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personalty, cognitive style, and the dynamic between seeking and experiencing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76*(2), 199-228.
- Steger, M. F., Oishi, S., & Kesebir, S. (2011). Is a life without meaning satisfying? The moderating role of the search for meaning in satisfaction with life judgment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3), 1-12.
- Stewart, A. J., Ostrove, J. M., & Helson, R. (2001). Middle aging in women: Patterns of personality change from the 30s to the 50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1), 23-37.
- Stewart, A. J., Vandewater, E. A., McAdams, D. P., & de St Aubin, E. (1998).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Stoll R. I. (1989). The essence of spirituality. In V. B. Carson (Eds). *Spiritual Dimentions of Nursing Practice* (pp. 4-23). W. B., Philadelphia: Saunders.
- Vash, C. L. (1994). *Personality and adversity: Psycho spiritual aspects of rehabilita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Walker, S. F. (2012). *Midlife transformation in literature and film (Jungian and Eriksonian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 Westgate, C. E. (1996). Spiritual we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1), 26-35.
- Wills, E. (2009). Spirit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s for a New Domain in the Personal Well-Being Index.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1), 10-49.
- Wong, P. T. (1989). Personal meaning and successful aging. *Canadian Psychology, 30*(3), 516-525.
- Zhang, Z., & Hayward, M. D. (2001). Childlessnes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erson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6*(5), 311-320.

1차원고접수 : 2018.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8. 11. 27.

최종게재결정 : 2018. 12. 03.

The Effect of Search for Meaning on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aged adult: Mediating Role of Generativity, Meaning Presence, Spirituality

Eunju Ji

Daegu Catholic University,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gender differenc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tivity, meaning presence and spirituality between search for meaning in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A total of 391 middle-aged adults(156 males and 235 fema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found the fully-mediated effect of the presence of meaning in the relationship of the search for mea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Generativity mediated the effect of search for meaning on meaning presence, while meaning presence mediated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search for meaning and spiritua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effect of spirituality on subjective well-being for male participants was stronger than that of female participants.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middle-aged adult, meaning presence, generativity, spirituality, gender differences